

깜빡이 만 켜도 사고 30% 준다



12 방향지시등 점등

택시 운전기사 김일중(52·광주 북구 문흥동)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길에서 신창동 방향으로 차를 몰다 대형 차량과 부딪혀 생명을 잃을 뻔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2.5t 트럭이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

전방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에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하며, 교차로 등에서 방향전환을 목적으로 신호대기 중일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나 승용차는 3만원, 이륜자동차는 2만 원, 자전거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69.3%(전국 평균)에 그치고 있다. 10명 중 3.1명은 방향지시등 점등 없는 끼어들기를 일삼고 있는 셈이다.

좌·우회전·횡단·U턴 전방 30m 이상서 켜야 위반 땐 범칙금 3만원

특히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끼어들거나 앞지르기를 할 경우 자신은 물론 상대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방향지시등만 켜도 교통사고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자 간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고예방 효과가 높지만 습관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방향지시등 조작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후원 : 손해보업협회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조선대 이번엔 정상화 될까?

임시이사 활동 종료 ... 사분위, 내달 5일 정이사 선임 논의

정이사 배분 비율 촉각

조선대 임시이사사회가 22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사실상 6개월간의 임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정이사 선임 등 조선대 정상화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대에 따르면 현 임시이사회의 임기는 다음달 6일까지다. 이에 따라 사분위는 다음 달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정이사 선임 방식(구성 비율)을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이사 선임 방식을 놓고 사분위원들 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면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와 마찬가지로 정상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광운대의 경우 지난 16일 임시이사 6개월 임기 종료에 따라 현재 이사부존재 상태이다.

따라서 조선대도 정이사 선임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또 다시 이사부존재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 2008년 10월 정이사 구성 비율 논의 시 9명의 정이사 중 7명을 현 조선대구성원이 추천한 인사로, 나머지 2명은 교과부나 종전이사추천 인사로 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올 3월 사분위원의 전체 인 11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된 이후 조 선대 정이사 선임 문제가 완전히 무 시되고 임시이사 파견이 추진되자 조



북한에 보낼 나눔의 저금통

22일 광주 YMCA 백제실에서 열린 '섬김과 나눔의 저금통 모금 캠페인' 선포식에 참가한 광주 YMCA 직원 및 회원 등 30명이 북한에 보낼 저금통을 든 채 히트모양을 그리고 있다. 광주 YMCA는 이날 모은 돈으로 밤 나무를 구입해 북한에 보낼 계획이다.

22일 광주 YMCA 백제실에서 열린 '섬김과 나눔의 저금통 모금 캠페인' 선포식에 참가한 광주 YMCA 직원 및 회원 등 30명이 북한에 보낼 저금통을 든 채 히트모양을 그리고 있다. 광주 YMCA는 이날 모은 돈으로 밤 나무를 구입해 북한에 보낼 계획이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선대 구성원들은 두 달여가량 시위를 벌이며 강력히 반발해 파행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임기 6개월의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사분위원들이 조선대 정이사 구성 시 종전이사 의견의 더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분위원들은 지난해 결정된 잠정안을 그대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사분위원 중 2명이 종전이사 B씨와 고교·대학 동창 관계인 탓에 종전이사의 이해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며 반발, 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사분위원은 "지난 해 잠정 결정된 정이사 선임안이 현 조선대구성원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종전이사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대 관계자는 "종전이사의 입장을 편드는 결정은 있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 달 5일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조선대 정이사 선임 방식, 즉 구성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조선대는 물론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선대는 22일 이사장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대외협력분부를 대외협력처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등 7개 안을 가결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상강(霜降)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도시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0/24℃
목포	맑음	12/23℃
여수	맑음	14/22℃
완도	맑음	11/23℃
구례	맑음	5/24℃
애남	맑음	6/24℃
장흥	맑음	6/24℃
고흥	맑음	8/24℃
순천	맑음	10/24℃
영광	맑음	9/23℃
진도	맑음	8/24℃
전주	맑음	8/23℃
남원	맑음	3/23℃
옥산도	맑음	15/21℃

바다	중랑	파고	지의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보통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날짜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0/24	10/24	11/23	11/23	12/22	12/20

무등산 군사도로·탐방로 주변 크게 훼손

공원계획안 용역 결과 무등산 내 15개 구간(42.5km)의 법정 탐방로, 25개 구간(109.4km)의 비법정 탐방로 등도 사람들의 통행이 늘어나면서 노력이 늘어나고 노면이 침식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수 백만명의 탐방객들이 무등산을 찾으면서 군사전도로 및 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등과 그 주변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광주시가 한국환경생태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무등산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와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늦재삼거리~장봉재 5.9km 구간을 조사한 결과 늦재삼거리~군부대삼거리 구간의 경우 노폭 9.96m에 이르러 복구가 필요한 면적이 약 2.7ha로 나타났다. 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605-605-1114 | 대학원 605-1115

다양한 부동산 광고와 서비스 정보. 부동산 매매, 임대, 전세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들.

연기/냄새로 민원고충 YHB기 해결

YHB (Yongin Home Business) 관련 광고. 연기, 냄새 등 민원 해결을 위한 YHB기 홍보.

이태리가구

이태리가구 (Itaeriga) 관련 광고. 다양한 가구, 인테리어 제품 등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광고.